

## 사료비 인상과 계란 생산비 변화

# 저난가 시대에 대비한 경영전략 세워야...



안 형 진 (주)에그리브랜드 푸리나코리아 상무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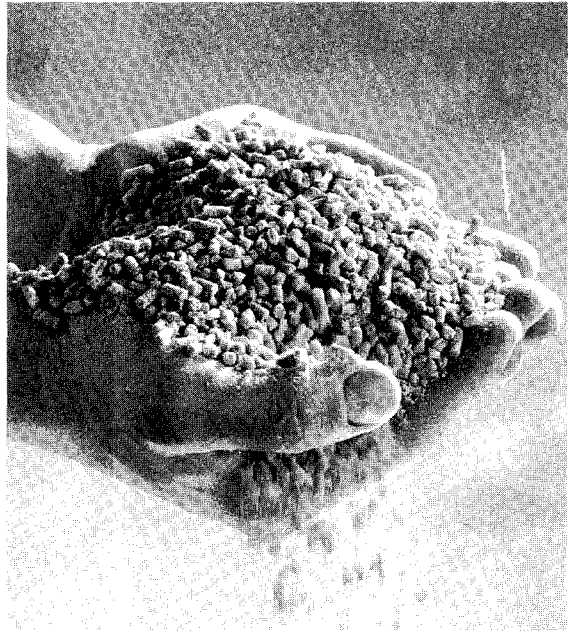
### 사료 가격 인상

중국의 특수로 인한 수요 증가로 곡물 등 사료 원료를 수출하던 중국이 역수입으로 돌아서면서 국제 사료 원료가격은 폭등을 지속해 왔고 불안한 상태로 이어지다 최근에는 다소 상승세가 꺾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그 동안 중국의 대대적인 서부지역 개발로 인해 선박 운송 물동량이 폭증하여 선임이 3~4배가 올라 사료 원료가격을 인상시키는데 큰 몫을 더해 주었다. 그러다 보니 사료가격 또한 여러 차례 인상했으며, 또 앞으로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 양계인은 이미 사료 대금 결제시 늘어난 사료 대금에 한번쯤은 놀랐을 것이다.

## 사료 가격 인상의 충격

### 1) 계란 생산비 상승

계란 생산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료비가 인상됨으로써 계란 생산비는 곧바로 영향을 받아 상승하였다. 계사 조건 즉, 무창계사인지 유창 계사인지? 체중 및 계사 내의 환경에 따른 사료 섭취량에 따라 계란 생산비 부담은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계란 한 개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사료량을 160g으로 보고(사료는 먹지만 산란하지 않는 닭의 사료비도 감안함), 최근 2차례에 걸친 사료 가격 인상을 kg당 60원 내외 정도로 보면 계란 1 개당 약 10원의 사료비가 그대로 추가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 2) 여전히 불안한 사료 원료 가격

2차례의 가격 인상으로 그 동안 인상된 원료 가격의 인상분이 완전히 반영된 것이 아니며, 원료 가격 인상 내용을 보면 조만 간에 한 두 차례 더 인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렇게 큰 폭의 인상은 얼마 전의 IMF 위기이래 처음 겪는 일이라 충격이 크지만 그 때는 그래도 일시적인 우리만의 쇼크라 지금 돌이켜보면 희망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의 원료 가격 인상은 세계적인 현상이며 중국의 수요에 어떤 변화가 오지 않으면 큰 변화없이 그대로 굳어질 것 같아 더 더욱 불안하기만 하다. 또한 계속 치솟고 있는 유가 및 환율 불안이 또 다른 복병으로 다가 오고 있어 참으로 걱정이 앞선다.

### 3) 손익에 미치는 충격 상승

지금은 난가가 생산비 이상이라 안심할 수 있다지만, 난가가 생산비 이하로 내려가면 생산비가 낮을 때의 손실액 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손실이 많아지게 된다. 즉 불황을 견디기가 예전보다는 훨씬 힘들어지게 됨을 의미하며 이는 앞으로 업을 영위함에 있어 과거보다 더 빠르고 민첩한 판단이 요구되는 것이다.

### 4)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생산비가 낮을 경우 즉, 사료비가 비교적 낮을 경우에 비해 생산비가 높아진 경우에는 훨씬 생산성이 중요하게 된다. 즉, 계란 1개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사료량은 생산성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산란율로만 보더라도 평균 산란율이 8%가 개선되면 계란 생산비는 1원이 절감된다.

$$115\text{g(사료 섭취량)} \div 70\%(\text{평균 산란율}) \times 60\text{원} = 9.8\text{원/개}$$

$$115\text{g(사료 섭취량)} \div 78\%(\text{평균 산란율}) \times 60\text{원} = 8.8\text{원/개}$$

이 생산비는 사료가격이 올라가면 그 차이가 훨씬 많아지게 된다.

## 고 생산비 시대의 생존 전략

### 1) 생산성 향상

사료가격이 오르면 가장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료단가이다. 하지만 냉정히 총체적으로 생각하면 역시 경쟁력 있는 생산성이다. 사료 섭취량은 줄일 수 없는가? 산란율은 더 올릴 수 없을까? 폐사를 줄이는 방안은? 질병예방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난중은 적절한가? 난질은 괜찮은가? 계사내 환경은? 등등 하나 하나 원칙대로 점검, 개선하면 생산성은 더불어 향상되는 것이다. 어려울수록 원칙대로 정면 돌파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생산성 향상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여 마치 공기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살아가듯이 그 중요성을 잊고 지나치고 있는 것이겠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생산성 향상이다.

### 2) 계란 품질 향상

난가가 좋을 때는 역시 난질에 대해서도 신경을 덜 쓰게 마련이며 계란을 가져가는 사람도 크게 불만을 표시 할 수 없지만, 이 부분도 크게 생각하면 우선은 문제없지만 언젠가는 그 불만이 어떤 형태로든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적극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계란의 품질을 더욱 개선시켜 난가를 더 받거나 장기적으로는 계란 소비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특수란 생산을 고려해 볼직도 하다.

### 3) 철저한 방역

비록 고 병원성 조류독감은 다소 진정내지는 종식되고 있지만, 끝난 것이 아니고 잠시 당장의 문제만 해결된 것이므로 항상 불안하다. 따라서 늘 차단, 격리, 소독 즉 방역의 기본 원리에 충실하여야 한다. 질병은 어느날 갑자기 찾아온다기 보다는 신호를 주기 마련이므로 늘 긴장감 있게 감시하고 닭의 건강이 최상을 유지하도록 좋은 영양상태, 높은 항체 보유상태, 쾌적한 환경관리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4) 빠른 사업적 결정

예전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농장 경영상의 문제가 보다 큰 충격으로 다가오므로 종전보다는 훨씬 긴장하며 빠르게 사업적 판단을 하여야 한다. 강제환우를 할 것인가? 한다면 언제 할 것인가? 중추구입은 언제? 도태는? 등등 신속히 판단하여 실행에 옮겨야 한다.

## 맺음말

사료 가격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게 또 장기간 지속 될 전망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각자 생존 전략을 수립하겠지만, 그 계획은 장기적인 목표에 부합되어야 하며 임시방편적인 방안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 생산성 향상, 방역 철저 등의 기본적인 경영 활동은 당연하며,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지금과 같은 고난가 시대에 벌써 긴장감 있게 향후에 예상되는 난가가 내려갈 때를 대비하여야 한다. **양계**